

2018년 8월 1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반도체 및 원자재주가 하락 주도 국제유가, 재고 증가 및 중국 경기 우려 부각되며 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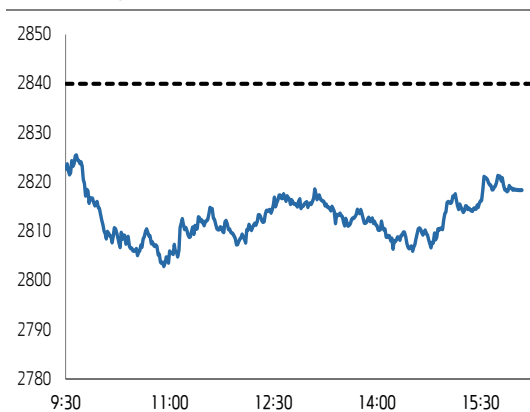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터키 발 긴장이 지속되며 하락. 전일에 이어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도 부진하며 낙폭을 확대. 더불어 소매판매 업종이 향후 전망 우려속에 급락한 점도 부담. 한편, 국제유가가 3% 내외 하락하는 등 상품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다우 -0.54%, 나스닥 -1.23%, S&P500 -0.76%, 러셀 2000 -1.29%)

미 증시는 ①반도체 업종 부진 ②기술주 하락 ③미-터키 긴장 재고조 ④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 ⑤국제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전일 미 증시가 상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은 부진한 데 이어 오늘도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 웨일스파고가 마이크론(-6.18%)에 대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70 달러→63 달러). DRAM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 하락 압력을 우려하고,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 증가 우려를 언급. 다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일부 그린 라이트 등 일부 헤지펀드도 마이크론에 대한 지분 감소를 발표하는 등 수급적인 부담도 영향. 대형 기술주도 부진했는데 새로운 이슈 부각 보다는 연초 대비 20~60% 내외 상승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 특히 무역분쟁이 지속된 데 따른 우려감이 부각되며 주요 헤지펀드들이 매물을 내놓았다는 보도도 부담.

한편, 터키가 미국산 주요 제품들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터키는 극단적인 내수 우위의 경제이며 수출 또한 대 EU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미국과의 무역 규모는 적음. 그렇지만,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중동정책, 러시아 정책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외교 안보적인 이슈로 부각된 점이 부담. 이런 가운데 친미 성향의 국가중 하나인 카타르가 터키에 대해 150 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터키 리라화는 안정을 보이고 있음.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오늘은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중국과 미국의 산업생산이 무역분쟁 여파로 둔화된 점이 부담. 이로 인해 에너지 업종이 4% 내외 하락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258.91	휴장	홍콩항셱	27,323.59	-1.55
KOSDAQ	761.94	휴장	영국	7,497.87	-1.49
DOW	25,162.41	-0.54	독일	12,163.01	-1.58
NASDAQ	7,774.12	-1.23	프랑스	5,305.22	-1.82
S&P 500	2,818.37	-0.76	스페인	9,386.80	-1.26
상하이종합	2,723.26	-2.08	터키	90,262.95	-3.38
일본	22,204.22	-0.68	이탈리아	20,906.35	휴장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대형기술주, 원자재, 소매판매 업종 하락 주도

마이크론(-6.18%)은 웰스파고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일부 헤지펀드가 지분을 처분했다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다. 인텔(-1.37%), TI(-0.67%), AMAT(-1.80%), 램리서치(-2.18%) 등 반도체 관련 주도 동반 하락했다. 한편, 페이스북(-0.87%), 알파벳(-2.06%), 아마존(-1.93%), 넷플릭스(-3.29%) 등 'FANG' 기업들은 일부 호재성 재료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대비 상승폭이 컸다는 점이 부각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다.

셰브론(-3.79%), 코노코필립스(-6.00%)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알코아(-7.36%), 프리포트-맥모란(-7.70%), US스틸(-3.14%), AK스틸(-2.39%) 등 원자재 및 광산 업종도 철광석, 구리를 비롯한 상품가격 급락 여파로 부진했다. 메이시스(-15.95%)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며 급락했다. 노드스트롬(-5.50%), 콜스(-5.75%) 등도 동반 부진했다. 다만, 애플(+0.23%)은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P&G(+1.22%) 등 필수소비재 업종을 비롯한 리얼티 인컴(+0.93%) 등 리츠금융 등 경기 방어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4.66%	대형 가치주 ETF	-0.67%
에너지섹터 ETF	-4.44%	중형 가치주 ETF	-0.74%
소매업체 ETF	-2.72%	소형 가치주 ETF	-1.11%
금융섹터 ETF	-0.79%	배당주 ETF	-0.85%
기술섹터 ETF	-0.90%	변동성 ETF	+6.41%
소셜 미디어업체 ETF	-2.82%	대형 성장주 ETF	-0.97%
인터넷업체 ETF	-1.58%	중형 성장주 ETF	-1.01%
리츠업체 ETF	+0.88%	소형 성장주 ETF	-1.42%
주택건설업체 ETF	0.00%	신흥국 고배당 ETF	-2.36%
바이오섹터 ETF	-1.56%	신흥국 저변동성 ETF	-1.89%
헬스케어 ETF	-0.17%	하이일드 ETF	-0.22%
곡물 ETF	-0.87%	물가연동채 ETF	+0.20%
반도체 ETF	-1.66%	Long/short ETF	+0.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29.59	-3.51%	-5.03%	-4.66%
소재	361.22	-1.55%	-2.75%	-2.11%
산업재	628.56	-0.48%	-1.73%	+0.32%
경기소비재	889.71	-1.22%	-1.23%	-0.96%
필수소비재	551.91	+0.44%	+0.34%	+2.27%
헬스케어	1,039.47	-0.16%	-0.19%	+2.83%
금융	459.95	-0.68%	-2.54%	-0.74%
IT	1,273.61	-1.07%	-1.46%	-0.51%
통신	154.07	+0.69%	+1.46%	+3.71%
유틸리티	271.09	+0.76%	+1.02%	+2.45%
부동산	205.49	+0.84%	+0.32%	+2.5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변동성 확대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2.22 MSCI 신흥 지수도 2.88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휴장이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3.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중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며 2% 내외 하락 했다. 미 증시도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에너지 업종이 하락을 주도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 수요 증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을 주도한 점을 감안, 오늘 관련 업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에 이어 미국의 산업생산이 예상을 하회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실물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특히 7 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yoy -0.66%)과 판매량(yoy -4.02%)이 둔화되는 등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중국 산업에 영향을 준 점이 부담이다. 더불어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가격 하락 또한 투자심리 위축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자금을 공급하는 등 통화정책 완화 의지를 표명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는 향후 중국 기업들의 생산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9 월 말까지 중국 양로목적펀드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도 우호적이다. 이는 향후 중국 증시에 장기적인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중국 증시 반등 가능성이 높아 국내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으로 한국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익 전망치가 상향 되고 낮은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매판매 개선

미국 7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공장 가동율도 78.1%로 예상(78.3%)을 하회했다. 한편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미국 7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로 예상(0.4%)을 상회했다. 석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 또한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예상(0.4%)을 상회했다.

미국 8 월 주택시장 지수는 67 로 전월(68)보다 소폭 하락 했다. 다만 예상치에는 부합되었다.

뉴욕 연은 지수는 전월(22.6)이나 예상(20.3)을 상회한 25.6 으로 발표되었다. 신규수주(18.2→17.1)과 고용지수(17.2→13.1)은 둔화되었으나 재고지수(-4.3→0.0)와 경기전망(31.1→34.8) 등은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3% 하락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240 만 배럴 감소 예상과 달리 68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더불어 중국의 산업생산을 비롯한 주요 실물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미국의 산업생산도 예상을 하회하자 수요 부진 우려감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중국이 미국산 원유에 대해 8 월 들어 수입을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원유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줬다.

달러지수는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보험권을 유지 했다. 유로화는 터키 관련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ECB 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달러화가 강세폭을 축소하자 강세로 전환 했다. 한편, 엔화는 터키 리라화 안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터키 리라화는 달러 대비 6%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카타르 정부가 140 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은 결과로 추정한다. 다만, 남아공 란드화, 멕시코 페소화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소매판매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과 터키발 지정학적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하락 했다.

금은 달러 강세와 터키 리라화 안정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예상을 하회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실물경제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부담되며 4%내외 급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97%, 철근도 0.4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5.01	-3.03	-2.88	Dollar Index	96.670	-0.06	+1.66
브렌트유	70.76	-2.35	-2.10	EUR/USD	1.1351	+0.06	-2.23
금	1,185.00	-1.31	-2.95	USD/JPY	110.7	-0.40	-0.25
은	14.454	-3.98	-6.34	GBP/USD	1.2700	-0.18	-1.41
알루미늄	2,025.00	-2.17	-3.85	USD/CHF	0.9932	-0.10	-0.01
전기동	5,801.00	-4.02	-6.03	AUD/USD	0.7241	-0.03	-2.56
아연	2,300.00	-6.28	-11.94	USD/CAD	1.3128	+0.54	+0.81
옥수수	376.00	-0.13	-2.34	USD/BRL	3.8972	+0.77	+3.31
밀	551.75	-1.69	-6.68	USD/CNH	6.9479	+0.70	+1.80
대두	869.00	-1.22	-4.56	USD/KRW	1127.90	-0.53	+0.36
커피	106.00	-2.30	-4.50	USD/KRW NDF 1M	1133.50	+0.53	+1.5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61	-3.80	-9.95	스페인	1.444	+3.30	+4.00
한국	2.495	-0.20	-6.20	포르투갈	1.836	+2.80	+7.60
일본	0.101	-1.10	-1.20	그리스	4.243	+1.50	+26.80
독일	0.304	-2.30	-9.40	이탈리아	3.161	+13.70	+25.30